원흥마을 사랑의 소식지

창간호 / 설레는만남
2015 0621

대한예수교장로회
들풀교회
www.grassch.com

마음에 드는 인생

글 | 양은익 목사

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들어
한 계절에 한 번씩 두통이 오고 두 계절에 한 번씩 이를 뽑는 것
텅 빈 미소와 더러운 죽음이 상관하는 내 인생!

……

어깨가 기울어지도록 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들어
아직 건너보지 못한 교각들 아직 던져보지 못한 돌멩이들
아직도 취해보지 못한 목숨의 많은 자세로 새롭게 웃고 싶어

(이근화, 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들어, 부분)

별로 마음에 들 것도 없는 인생 같은데
새롭게 웃고 싶을 정도로
그런 인생이 마음에 든다고 고백하는 시인의 마음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때에
참 오랜만에 들어 보는 신선한 고백 아닌가요?
이런 귀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들어'
이런 마음은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좋은 스펙이 마음에 드는 인생을 만든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좋은 스펙을 害와 排泄物로 여겨 포기해도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인생 살아가고 있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외적인 성취와 스펙의 매임에서
이제 그만 벗어 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매이면 매일수록 마음에 드는 인생은 멀어지고,
영혼은 죽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
답답한 스펙의 세계에서 떠나
예수의 정신을 품고 자유함을 누리며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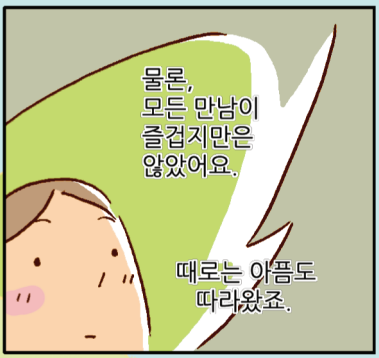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3:5~8)

만남으로
사랑이
시작됩니다.
설레는
첫 만남을 꿈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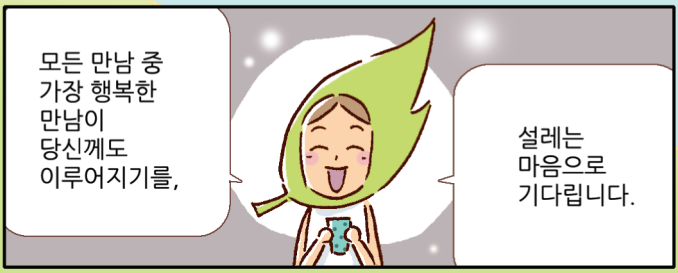
들풀이

by. csh



그래도,

만남이 있어야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천사의 섬엔 천사가 있었다.

짱뚱어 다리

문준경전도사 순교기념관

태평염전

증도라는 지명은 증도의 어제와 오늘을 상징하는 듯해 재미있다. 증도는 물이 귀하여 물이 '밑 빠진 시루'처럼 스르르 새어 나가 버린다는 의미의 시루섬이었다. 한자로는 시루 증(甑) 자를 써서 증도(甑島)라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안군은 군내에 1,004개의 섬을 모아 1004의 섬 즉'천사의 섬'이라 하였고 증도는 그 두번째 섬에 해당된다.

아시아에서 첫번째로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섬. 느리게, 평안하게, 고요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발견을 위한 힐링의 섬.

태평염전, 짱뚱어다리, 엘로라도리조트, 염생식물원 등 각종 체험거리와 맛있는 음식 등 즐길거리가 가득한 섬.

우리가 아는 증도는 어느순간 힐링 여행의 위시 리스트 상위권에 항상 올라 있는 섬이 되었다.

그러나 그 곳에 진짜 천사가 살았었고 그 천사의 제자들이 이 땅 곳곳에서 천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것이다.

진짜 천사가 살았던 천사의 섬으로 이번 여름 휴가를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좌측의 큐알코드를 스캔하시면
증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천사의 섬의 천사를 찾아서

글 | 조성임

오래 전 주위에서 단체로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기념관을 방문 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 가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모처럼 가족들이 시간이 맞아 그동안 가보고 싶어 했던 '천사의 섬' 전남 신안군 증도를 다녀오게 되었다.

전시관을 둘러보며 문 전도사님의 선교활동과 일대기에 대한 영상과 유품 등을 관람하고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지 현장도 방문하였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는 성경 말씀대로의 삶을 실천하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거룩한 순교의 길을 가신 분이다.

문준경전도사의 사역

문전도사는 나룻배를 타고 수많은 섬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전도,설득하며 의사, 간호사, 산파, 유모, 우편집배원 역할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장티푸스로 가족 조차도 환자 곁에 가지 않는 가운데 장례를 치러주고 잔칫집 음식을 거둬 가난한 집에 나눠주는 참 목자였다. 신안군 14개 읍면을 밤낮 가리지 않고 다니느라 1년에 고무신 아홉 켤레가 닳아 바꿔 신어야 했다.

이렇게 전도에 일생을 바친 문전도사의 헌신을 바탕으로 증도라는 작은 섬에는 현재 목회자 161명, 장로 79명의 사역자를 배출했으며 주민 2,600여명 중, 90% 이상이 기독교신자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천국의 섬'이 되었다.

증도의 어머니로 불리는 문준경 전도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의 열매는 상상을 초월한다. 훗날 48명의 순교자가 나온 임자도진리 교회는 그녀가 개척한 첫 번째 교회였다.

문준경전도사의 순교

6.25전쟁이 일어나고 섬으로 쳐들어온 공산주의자 들이 문전도사님을 체포했으나 국군의 상륙으로 풀려난 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러 가야한다'며 목회자의 사명감 하나로 증도로 돌아왔다. 그 후에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에만 매진하던 문 전도사는 1950년 10월 5일 새벽 새끼줄에 묶여 공산주의자 들 앞으로 끌려가 발로 차이고 창에 찔리는 고통을 당하다가 증동리 앞 백사장에서 인민군들의 곤봉과 총탄에 59세를 일기로 순교하였다.

"아버지여 저 들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죄 많은 내 영혼을 받으소서"
마지막기도를 남기고...

문전도사는 비록 연약한 여자의 몸이지만 작은 나룻배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싣고 다니며 전도했던 성경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로 목회자로서는 아시아 유일의 여성 순교자이다.

문준경전도사의 후예들

'내 삶과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바로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님이시다' 라고 한 CCC 김준곤 목사님의 고백을 보며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문전도사가 배출한 대표적인 신앙인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위해 전력을 다한 대학생선교회 CCC 창립자 김준곤 목사, 치유목회 전문가 정태기 박사, 전 한기총 대표회장 이만신 목사 ,성결교 전 총회장 이만성 목사 등 이외에도 수많은 목회자, 법관, 기업가 등을 배출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오는 길에 짱뚱어 다리도 건너보고, 한가롭게 논바닥에 나와 있는 많은 짱뚱어 들도 만날 수 있었고, 국내 최대의 천일염 생산지인 증도의 소금박물관도 볼 수 있었다.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위해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이 된 문준경전도사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지 않고 기독교 지도자의 참다운 모습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 믿음의 영웅이며 천사의 섬을 위한 진정한 천사였다.

작고 약한 여성이라도 신앙을 통해 누구보다도 강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문준경 전도사의 섬김의 사랑, 희생으로 우러나는 사랑, 성령의 능력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신앙을 보며 숙연해지고 한편으로는 신앙인으로서 도전이 되는 은혜롭고 귀한 여행이었다.

문준경전도사순교기념관

- 전남 신안군 증도면 문준경길 234 (증도초교 옆)
- 광주터미널에서 증도까지 80km
- 목포터미널에서 증도까지 66km
- 개관시간 : 오전 9시30분 ~ 오후 5시30분
  (월~토) 주일은 휴관입니다.
- 연락처 : 061-271-3455
  (생활관이 있어 숙박가능)

환절기 건강관리

글 | 일산 사랑의 내과 김화영

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 때문에 온 나라가 불안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있을 때가
한 여름보다 오히려 배탈(장염, 식중독)이나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온도 차이로 인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아래의 두가지 방법을 일상 생활에 잘 적용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세균 바이러스 유입 막기 |

첫째, 가장 쉬운 방법 "손 씻기"

외출후, 식사전 수시로 깨끗이 손을 씻는 것 만으로도
상당량의 세균,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비누를 사용해 물로 꼼꼼히 손을 씻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둘째, 음식물 섭취시 주의

상온에 방치된 음식물은 가급적 섭취하지 말아야 하고
냉장고에서 수일간 지난 음식물도 주의해야 합니다.

|면역 기능 높이기|

첫째, 체온 높이기

체온이 1 ° C오르면 면역기능은 5~6배 활성화되고,
체온이 1 ° C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떨어집니다.
덥다고 너무 찬것을 먹거나, 냉방속에 계속 있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급속히 떨어집니다.
체온을 높이는 방법은
따뜻한 물 먹기,
따뜻한 식사하기,
족욕하기, 반신욕 하기,
몸을 움직여 운동하기(산책, 체조, 가벼운 조깅),
따뜻하게 입기 등이 있습니다.

둘째, 충분량의 수분 공급하기

충분량의 수분이 있어야 면역세포들이 적재적소로 이동하여
세균 바이러스를 제거해 줍니다.
물은 기상직후, 식사 1시간전, 식사2시간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때 다량의 물은 소화액을 희석시켜
소화장애를 일으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후 다량의 물은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WHO 적정 1일 물 섭취량은 1.5~2L(200cc 8잔) 입니다.
콩팥이 나쁜 분은 물 섭취량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째, 충분한 수면 유지

평균 7시간의 숙면을 권장합니다.

네째, 스트레스 최소화하기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뜨리고 혈액 흐름을 방해합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Q&A

발췌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미란

이 코너는 생활에서 만나는 궁금증을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풀어나갑니다.
이번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보 6월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Q

곧 부모님이 직장에서 퇴직하시는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간 연금액이 얼마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연금 소득 연간 4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직장피부양자에서 제외 됩니다.
역가입자의 연금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연금소득의 100분의 2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퇴직하시고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보험료 부과에 반영됩니다.

Q

CT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변 사람들 중에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궁금합니다.

A

CT(전산화단층촬영)는 악성종양의 진단과 병기 결정 및 추적 검사, 급성외상,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동맥 질환 등
다양한 범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흉부、복부、골반강、척추등 부위별 세부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진료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CT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일반 의원과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현재 한의원 및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환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진료비(비급여 제외)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전체 진료 비용 (비급여 제외)	본인 부담금(비율)
한의원 및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의원	15,000원 이하	1,500원
	투약 처방해 15,000원초과 ~ 20,000원 이하인 경우	2,100원
	15,000원 초과(투약 처방한 경우, 20,000원 초과)	전체 진료비의 30%
의 원	15,000원 이하	1,500원
	15,000원 초과	전체 진료비의 30%

Q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심사를 받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판정받은 할머니가 계시는데,
돌봐드릴 분이 없습니다. 요양원(요양시설)에 계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5등급으로 요양원에 계신다면 100% 개인 부담으로 비용을 내야 하나요?

A

치매로 인해 장애 및 가족 부담이 상당히 큰 5등급 수급자가 시설 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 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아래의 기준에 해당 될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5등급자의 시설 급여를 인정합니다.
만약, 시설급여를 인정받지 않은 5등급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할 경우
전액이 본인 부담입니다.

☞ **5등급 수급자의 시설 입소 기준**

- ①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① 또는 ② 요건 중 하나이상 충족하며,
  동시에 의사소견서(치매진단관련 보완 서류)상 치매로 인한 장애정도
  합산점수가 20점 이상이고 가족부담 및 사회적 환경점수가 6점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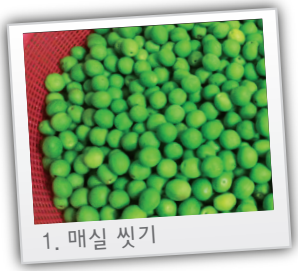
매실효소 만들기

준비물

매실 20kg, 흰설탕 24kg,
22리터 통 2개, 대야

TIP

좋은 매실 고르는 법
크기가 4cm정도이며 씨가 작고
과육이 풍부하며 맛 보았을 때
신맛과 단맛이 나는 것이 좋으며
표면에 상처가 없이 깨끗한 것을 고르고
효소를 담기에는 충분이 익은것이 좋습니다.


1. 매실 씻기

깨끗하게 매실을 씻어 줍니다.
(씻은 매실을 말린 후 설탕에 재기도 하지만 물기를 말리지 마세요)
음~~ 매실향기가 아카시아 향기 퍼지듯
온 집에 가득히 퍼져나네요.

2. 버무리기

깨끗하게 씻은 매실을 대야에 넣은 후 준비한 설탕
(매실 10kg당 설탕 12kg)을 우선 1/2 즉, 6kg만
붓고 젖어 있는 매실과 함께 버무려 주세요.
마치 인절미에 콩가루 묻은 것처럼 설탕이 묻어나도록요~
(설탕은 흰설탕을 사용했습니다. 맛이 더 깔끔하다네요~)

매실의 효능 살펴보기
소화, 식중독, 해독과 항균에 좋습니다. / 구연산이 많아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피크린산 성분으로 신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 유기산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각종 비타민이 많아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인의 손녀딸이 겨울 내 감기를 달고 사는데 여름 내내 매실효소를 먹고서
3년 동안 감기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요~^^

고수 | 박영임 권사 / 정리 | 진애경 / 사진 | 임지영

3. 통에 담기

설탕에 버무린 매실을 준비한 통에 담아 주세요.
(전 유리통이 아닌 플라스틱 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탕 6kg을
그 위에 쏟아 부어주세요.
살짝 통을 흔들어가면서요.
요렇게 통에 꽉 차네요.

4. 설탕채우기

5. 마무리

뚜껑을 야무지게 닫아주세요.
최소 3개월에서 100일 미만으로 그늘에 보관해 둡니다.
(주의: 설탕이 잘 녹으라고 휘젓지 말아주세요.
휘젓다 보면 많은 설탕이 녹아서 걸죽하게 됩니다.
매실 안에서 나오는 물이 설탕을 자연스레 녹도록 놔두면
맑은 매실효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100일 이내에 매실을 건져주세요..

TIP

고수의 킥1
설탕이 너무 많아 보이나요? 설탕이 매실량 보다 적으면 식초처럼 시어진다고 합니다.
대신 설탕량이 많을 경우 달콤새콤한 매실효소가 된답니다.^^

고수의 킥2
그 많은 설탕은 다 녹았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충분히 녹고 남은 설탕은 바닥으로 가라앉는데 그 양이 3~4kg정도 됩니다.
가라앉은 설탕은 용기에서 꺼내어 유리그릇에 보관하여 음식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수의 킥3
충분히 쪼그라든 매실은 물을 채워 한 달 간 삭힌 후 삭힌 물을
키우는 채소에 분사해 주시면 해충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와 그림 '사랑인가 봐요'

– 4집 / 산위의 가르침 –

글 | 박병남

10년 전쯤 우연히 인터넷에서 듣게 된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 곡이 담긴 앨범을 사서 몇 달을 계속 들었다. 그렇게 알게 된 '시와 그림'이라는 듀엣팀이 만든 그 앨범에는 '사명선', '물 위를 걷는 자', '절망 앞에서' 등의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노래한 10곡이 담겨 있었다.

그 중에서 '사랑인가 봐요'라는 이 곡은 그 가사와 리듬이 가장 밝고 경쾌한 CCM에서도 찾기 힘든 느낌의 곡이다. 가사와 곡 전체에서 사랑의 설렘과 들뜬 마음이 그대로 느껴진다. 마치 주현미의 '첫사랑'을 듣는 느낌이랄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왠지 그렇게 가볍게 느끼면 안 될 것만 같은 선입견 때문에 왠지 찬양처럼 느껴지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은 이 곡을 듣고 있으면 나에게 주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설레고 기쁜 일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된다. 푸른 하늘, 시원한 바람, 따뜻한 햇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니! 어쩌면 무딘 마음으로 감동 없이 살아가는 나였기에 이 곡이 더 신선하게 다가온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처럼 설레고 들뜬 기분일 수도 있겠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이 곡을 들을 때면 왠지 모르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떠오른다. 아름다운 산과 들, 좋은 날씨에 감탄하시는 모습,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라며 교인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전해주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들을 보며, 또 말씀 한 줄을 읽으며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배우고 싶다.

푸른 하늘 그 속에서 시원한 바람 불면,
말 할 순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느껴요.
나뭇가지 틈 사이로 따스한 빛 비춰면
난 느낄 수 있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누가 뭐래도 세상은 아름다워요,
이게 사랑인가 봐요.
나의 이 기쁨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면.
세월 흘러 시간이 가도 그 사랑 변함없죠.
내 맘이 설레는 이게 바로 사랑인가 봐요.

좌측의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시와 그림의 '사랑인가 봐요'를 감상 하실 수 있습니다.

TO LET은 TOILET?

글 | 김명숙 전도사

2002년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지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이면 시내 교회를 가기 위해
라호르 큰 대로변을 지나는데
도로 주변에 'To let' 이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함께 표기된 우르드어(파키스탄 말)는
몰랐기 때문에 넘어가고
영어표기를 보고는 'Toilet(화장실)'의 'i'자를 빼고
잘못 표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화장실이란 단어가 좀 민망하니까
저렇게 스펠링 하나를 빼주는 센스? 정도로 생각했었지요.
공공시설이 없는 파키스탄에 운전하다가
혹은 걷다가 급하면 이곳에 가서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런 공중화장실이 있다는 것도 놀라왔을 뿐만 아니라,
대로변에 보이기 쉽게 푯말을 세워 놓은 것이
무척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들 약속이라도 했듯이 철자를 잘못 표기한
공중화장실 푯말뿐이었습니다.
조금 의아하게 여겼지만 잊어버렸지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그 길을 지나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그 푯말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같이 동행하던 선교사님이 놀라 붙잡았습니다.
웬걸, 큰일 날 뻔 했습니다.
푯말, 'To let'은 'Toilet(화장실)'의 오타가 아니라,
'let'의 영국식 영어표기인 '집을 세놓다'라는
표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주거 침입죄로 혼이 날 뻔 했습니다.
좌충우돌 여행 이야기였습니다.

자랑 한 번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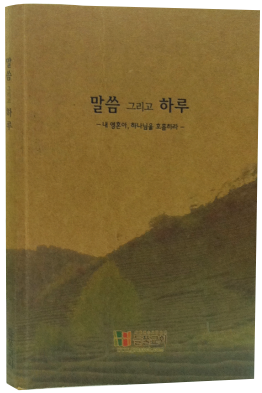
지난 11월 도래울마을에 들풀교회가 처음으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작은교회지만 도래울마을의 새로운 식구로서 마을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때 교회의 큰 형님들이신 남전도회에서 지역 청소를 제안하셨고, 성도 모두 이견 없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구청과 LH공사 사이에 이견이 있어 마을 청소가 미뤄지고 있었고, 이것이야 말로 마을을 섬기는 좋은 기회라 여겨 2015년 4월 12일 주일 오후부터 봄 향기 가득한 도래울 마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녹색 조끼로 도래울 중앙로를 물들이며 각자 맡은 구역에서 열심을 내는 들풀교회 가족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고 처음보다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어 청소나가는 회수가 조금씩 줄더라고 멈추지는 않겠습니다.

주일 오후 지나가시다가 청소하고 있는 녹색조끼를 보신다면 웃는 얼굴로 인사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이라도 더해주신다면 더큰 영광이겠습니다. 혹시 주일 오후 심심하시다면 운동삼아 저희와 함께 마을을 섬기시는 것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많이 건강해졌거든요!!!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부끄럽지만 자랑한 번 해 보았습니다.



매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세상 사느라 흩어졌던 마음이
모이기를 원하면서 말이지요.

한 모금의 생수라도
마셨다면 감사할 뿐입니다.
-서문에서-

'들풀교회' 누리집에 매일 올라오는
"말씀 그리고 하루"를 함께 나누고자
작은 묵상집으로 엮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들풀교회는 작고(small), 낮고(lowness),
느리고(slow), 단순하고(simple),
아름답지 않은(ugly) 것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들풀교회는 Stop Talking, Start Doing,
말을 멈추고 행동 하기를 원합니다.

들풀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숨을 쉬고,
숨 쉰 만큼 자라고, 자란 만큼 비추고,
비춘 만큼 세상을 밝히고 싶습니다.

주 일 예 배 : 오전 9시(예정) / 11시
어린이예배 : 주일 오전 11시
들 풀 강 좌 : 주일 오후 1시
수요성서학당 : 오전 10시 / 오후 8시
금요기도회 : 오후 9시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40 예승골드프라자 4층
031-966-3217 / 010-3747-3032

1. '원흥마을 사랑의 소식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들풀교회'에서 계간으로 발행하는 도래울마을 소식지 입니다.
2. '들풀교회'는 도래울마을의 한 식구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아 '원흥마을 사랑의 소식지'를 만듭니다.
3. '원흥마을 사랑의 소식지'는 도래울마을 가족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기를 소망합니다.
4. 참여하는 방법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원고로 작성해서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던 것을 질문형태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5. 그 밖에 알리고 싶은 행사나 맛집, 여행장소에 대한 제보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6. 글이나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7. 원고나 질문, 제보 등은 grasschpub@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모든 감정에 공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01 마음에 드는 인생

02 들풀이

04 천사의 섬엔 천사가 있었다

08 환절기 건강관리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2 매실효소 만들기

14 함께 하고 싶은 CCM

15 좌충우돌 외국생활기

들풀교회 누리집
www.grassch.com